

공동선과 유대감

그리고 도시 공동체

신자유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산 이후 정글과 같은 환경에서 시민들의 각자도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시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열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각종 자연적·사회적 재난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어 낸다. 동아시아는 농경 사회적 정서가 뿌리 깊고 자아(Ego)의 실현보다는 공공의 조화와 이익을 우선하는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대화된 도시 공동체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막스 베버와 라인홀드 니부어의 성찰을 통해 이를 위한 인문학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schedule

4.25.(목) 5.2.(목)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민아(인천대)

5.9.(목) 5.16.(목)

라인홀드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윤영돈(인천대)

일 시 2024년 4월 25일~5월 16일 매주 목요일 15:00~17:00(4회)

장 소 학산도서관 중앙관 지하 1층 세미나실

대 상 시민, 교직원, 학생 (50명)

신 청 학산도서관 홈페이지 → 연구학습지원 → 도서관이용자교육 → 학술정보이용교육
→ 해당 강연 신청 ※ 시민은 전화 032-835-9416 또는 이메일 uoahylf@inu.ac.kr 신청

혜 택 재학생: 수강 후 레포트 제출 시 필독교양도서 마일리지 3점 부여
교직원: 참여 시 강좌별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문 의 학산도서관 ☎ 032-835-9416

주 최 인천대학교 인문대학·인문학연구소·학산도서관